

# 이른 더위에 초여름 광주 곳곳서 모기떼 ‘윙윙’

광주시보건환경연구 ‘모기 트랩지수’  
이달 첫주 133...전년 동기 3배 ↑  
전주 대비 400% 이상 폭증 수치  
“산란기 일찍...감염병 예방 최선”



이른 무더위로 인해 광주 도심 곳곳에 모기떼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하늘마당 인근 한 편의점에 모기 물액, 모기 퇴치 스프레이 등이 품절 상태다. /서형우 기자

#광주 서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밤잠을 설치고 있다. 때 이른 모기떼가 밤새 괴롭게 해서다. A씨는 “작년에는 7월에야 모기향을 피웠는데, 올해는 지난달부터 사용 중”이라며 “에어컨을 벌써 틀기엔 부담이라 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모기가 극성이다 울어름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다섯 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북구 주민 B씨도 요즘 모기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오거나, 함께 외출하고 돌아오면 늘 모기에 물려 간 지러움을 호소해서다. B씨는 “가려워서 긁다 보니 흉이 진 것도 다수”라며 “효과가 좋다는 기피밴드나 차단제만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울여름 더위가 일찌감치 시작되면서 광주 곳곳서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하는 ‘디지털 모기감시장비(Digital Mosquito Monitorin

g System·DMS)’에 따르면 트랩당 채집된 모기 개체 수를 나타내는 ‘모기 트랩지수’는 ▲5월 첫째 주(3-9일) 10 ▲5월 둘째 주(10-16일) 20 ▲5월 셋째 주(16-23일) 29 ▲5월 넷째 주(24-30일) 25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별 트랩지수가 각각 5, 14, 16, 9였던 걸 고려하면 최대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달 첫째 주(6월31일-6월6일)의 경우 133으로 직전 주보다 400% 이상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 수치였던 37보다도 3배가량 높다.

현재까지 채집된 모기 중에선 일본뇌염이나 뎅기열 등을 유발하는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급증한 모기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면 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기 기피제 등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전날 오후 찾은 광주 동구 하늘마당 인근 한 편의점은 모기 물액, 모기 퇴치 스프레이 등이 품절 상태였고 모기향도 단 하나만 남아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의 모기향과 모기 기피제 제품 리뷰에서도 “5월인데 벌써 아이가 물려 주 문했다”, “날이 점점 더워지더니 모기도 슬금 슬금 나와 미리 장만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른 모기떼의 주요 원인으로 ‘이른 더위’를 꼽았다. 지난달 광주 지역 최고기온 분포는 24-28도였는데, 모기 서식에 유리한 온도(25-30도)가 유지되면서 산란기가 빨라 졌다는 것.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거나 오랜 기간 연속해서 비가 내리면 오히려 모기가 생존하기 불리한 환경이 돼, 개체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기가 주로 물이 고인 곳에서 산란하는 만큼 가정에선 화분 밑의 받침대를 자주 비우고 배수 설비도 점검하는 게 좋다”며 “모기로 인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체 감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형우 기자

## ‘대리 수술’ 물의 서구 병원 내주 행정심판 심리

오는 19일 ‘폐업 처분 취소’ 대상

결정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

광주 서구로부터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한 행정 심판 심리가 다음 주 중 진행 된다.

10일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9일 서구 화정동 소재 A 병원이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병원은 의사들이 수술을 해선 안 되는 간호조무사에게 봉합 처치 등을 맡기는 등 이른바

‘대리수술’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

이 외에도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수가를 받아 채긴 혐의 등으로 A 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료진들이 현재 병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자문 내용을 근거로 청문회를 진행했고, 지난 2월27일 A 병원 측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초 처분은 6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A 병원 측은 지난 3월 서구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요청했다.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A 병원은 현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서구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 A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며 병원 측 청구가 받아들여질 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된다.

심리 진행 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주일 정도가 소요돼, 늦어도 이달 중이면 A 병원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성 기자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캠페인 나눔문화 확산과 폭염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다지는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캠페인’이 10일 오전 광주 서구청 1층에서 열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구어니스트, 이웃돌봄단 등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재일동포 간첩단’ 누명 교사 사후 재심서 명예 회복

법원 “공소사실 인정 증거 無”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주도의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누명을 쓴 교사가 사후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다가 석방된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하고 1988년 가석방, 오랜 수형 생활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8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A씨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체포, 구금돼 가혹 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에서 유학했던 A씨의 아들도 같은 누명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이후 올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재영 기자

## ‘응축수 누출’ 광양 화학공장 근로자 사망

전남경찰, 중처법 위반 여부 등 조사

광양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했던 고온 응축수 누출 사고로 치료받던 근로자가 최근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광양시 태인동 한 화학 공장에서 화상을 입었던 작업자 1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사망했다. 당시 공장에서는 스팀을 활용해 화학 설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배관 밸브가 열리면서 고온 응축수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고, 다른 작업자 1명은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작업자가 사망한 만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와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재영 기자



# 건강검진

##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